

광주FC, 갈 길 바쁜 전북 상대 승점 사냥

2연패 빠진 2위 전북과 홈경기 내일 전용구장 첫승도 도전 전남, 경남 상대 승점 3 노려

광주FC가 K리그1 '우승'의 키를 쥐었다. 광주가 12일 오후 4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전북현대와 2020 K리그1 2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이날 광주의 움직임은 상대인 전북은 물론 울산 현대에도 관심사다. 올 시즌 K리그1 우승 경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디펜딩 챔피언'인 전북과 울산의 대결로 압축됐

다. 현재 울산이 승점 46점으로 선두질주 중이고, 전북은 승점 41로 1위 추격을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광주는 19라운드 울산에 이어 20라운드에서는 전북을 만나게 됐다. 일단 3연승을 달리던 울산은 광주의 공세에 기세가 주춤해졌다. 19라운드 울산전에서 광주는 울리안의 선제골을 앞세워 1-1 무승부, 승점 1점을 챙겼다. 광주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도 패배 같은 무승부를 기록했던 울산은 이번에도 '광주의 퇴장'이라는 호제 속에서도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전북은 우승 경쟁의 갈림길에 서있다. 울산에 5점 차로 밀려있는 전북은 최근 2연패에 빠졌다. 강원FC에 1-2로 패했고, 성남원정에서도 0-2로 졌다.

이번 광주와의 대결 이후에는 15일 안방에서 울산과 21라운드 맞대결이 예정돼 있다. 전북 입장에서는 연패를 끊고 '결승전' 같은 울산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승 경쟁의 키를 쥐고 있는 광주는 탄탄해진 전력과 홈이점을 안고 전북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리그 상위권 팀을 연달아 만난 대진 속에서도 2승 4무를 기록하면서 파이널A 그룹을 위한 경쟁을 하고 있다. 승점 21점인 광주는 득점에서 밀려 대구FC(승점 21)에 이어 7위. 하지만 10위인 부산아이파크(20점)도 승점 1점 차에 있다. 파이널라운드까지 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광주는 앞서 울산을 막은 기세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의 첫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전북의 약점이 된 왼쪽 측면을 노린다. 국가대표 측면수비수 김진수가 중동으로 이적한 후 전북은 왼쪽 측면에 약점을 노출하면서 연패에 빠졌다. 최근 광주 공격에 바람을 불어넣었던 울리안이 퇴장으로 전북전에 나서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펠리페와 엄원상의 움직임은 여전하다. 두현석, 김정한, 김주공 등 빠른 자원들도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전북의 우승경쟁에 대한 부담감도 전략적으로 활용해 초반부터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두 경기 연속 '극장골'로 웃고 올랐던 전남은 경남 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K리그2 19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전남은 최근 두 경기에서 극적인 후반 추가시간을 보냈다.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는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극적인 페널티킥으로 1-1 무승부를 이루며 승점 1점을 보냈다. 하지만 앞서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장준영의 헤더에 승리를 놓치고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K리그2 최소 실점(경기당 0.72)을 자랑하는 전남은 최근 10경기에서 1패만 기록했다. 전남은 현재까지 3패로 1위 제주유나이티드와 나란히 최소 패배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무승부도 가장 많은 10차례를 기록했다. 전남은 12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되는 경남과의 경기에서는 '무승부-패배'라는 각오로 승리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기다렸던 손흥민 질주 다시 시작된다

EPL 14일 에버턴과 개막전 이강인도 레반테와 첫 경기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이 다시 시원하게 질주한다. 손흥민은 14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0시 30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에버턴과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전으로 2020-2021시즌을 시작한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업그레이드했다. 스피드와 슈팅력에 경기의 흐름을 읽는 시야와 패시력까지 더해졌다. 정규리그 최다 공격포인트(21개·11골 10도움), 공식전 최다 공격포인트(30개·18골 12도움) 기록은 손흥민이 '만능형 공격수'로 다시 태어났음을 증명한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10골-10도움을 돌파한 선수는 손흥민을 비롯해 케빈 데브라위너(13골 20도움·맨체스터 시티), 무함마드 살라흐(19골 10도움·리버풀) 3명뿐이다. 손흥민은 16라운드 번리전에서 넣은 '70m 질주 슈퍼골'로 축구사에 길이 남을 장면까지 남겼다. 토트넘에서 맞는 6번째 시즌, 전성기에 접어든 스물 여덟 살의 손흥민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이미 프리시즌을 통해 자신의 '정점'은 오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4경기에서 토트넘이 기록한 9골 중 가장 많은 4골을 손흥민이 책임졌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마무리뿐 아니라 공격 전개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에이스'다운 경기력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5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도전한다. 2016-2017시즌 작성한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 14골 기록 경신도 노린다.



이강인

지난 시즌 전반기 최악의 부진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6위에 턱걸이한 토트넘은 '빅4' 재진입이 이상과제다. 올 시즌도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과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 전망이다. 두 선수 모두 에버턴전 선발 출전이 예상된다. 지난 시즌 약점으로 지목된 '중원'은 덴마크 국가대표 미드필더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25) 영입으로 보강했다. 수비력이 좋은 호이비에르가 자리잡으면 손흥민은 한결 부담 없이 공격에 힘 쏟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첫 상대 에버턴은 손흥민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준 팀이어서 '개막 축포'를 기대하게 한다. 손흥민은 에버턴과 통산 6경기에서 나서 3골 3도움을 기록 중이다. 한편,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뛰는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19)도 같은 날 오전 4시 흡인 메스타야 경기장에서 열리는 레반테와의 정규리그 첫 경기를 통해 새 시즌을 시작한다. 이강인 역시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멀티골을 폭발하며 새 시즌 기대감을 높였다. 좀처럼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발전'보다는 '정제'에 가까운 2019-2020시즌을 보낸 이강인에게 이번 시즌은 유럽 성인 무대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한 시험대다. /연합뉴스

'인구 2만' 카리브해 섬 보네르 FIFA 212번째 회원국 도전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보네르가 국제축구연맹(FIFA) 212번째 회원국에 도전한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간) 보네르축구협회가 FIFA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화상 심리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북쪽 카리브해의 섬인 보네르는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의 일부였다가 10년 전 해체되면서 네덜란드의 특별자치단체가 됐다. 네덜란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구는 2만915명이다. 2013년 대륙을 대표하는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에 합류한 보네르는 FIFA에도 회원국이 되고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해 CAS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AP통신은 "보네르가 CONCACAF에 합류하면서 FIFA 회원국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를 갖췄지만, FIFA는 회원국이 되려는 단체가 그 나라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축구를 관장하고 감독할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FIFA가 보네르의 가입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전했다. 보네르의 축구 발전과 관련해선 FIFA가 네덜란드축구협회와 협력해 온 터라 보네르를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보네르는 '국가대표팀'과 자국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CONCACAF에 이미 가입해 지난해 도입된 국가대표팀인 네이션스리그에도 참가했다. CAS의 심리 절차는 끝난 가운데 판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한국계 이완, 투르 드 프랑스 11구간도 우승

어머니가 한국인인 케일럽 이완(26·호주)이 세계적인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올해 두 번째 구간 우승을 차지했다. 이완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사텔라용-플라주에서 푸아티에까지 167.5km를 달린 11구간 경주에서 막판 스프린트 경쟁을 뚫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워낙 결승선 앞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완은 비디오 판독을 거쳐 우승자로 판명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완은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틈이 생기기를 기다리면서 자전거를 던지다시피 달리면서 아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승한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국인 어머니와 호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완은 지난 1일 3구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지난해 대회에서는 3차례 구간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은 그의 개인 통산 다섯 번째 투르 드 프랑스 구간 우승이다. 키가 165cm에 불과하지만, 폭발적인 주력으로 '포켓 로켓'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완은 2015년 한국 일주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코리아'에 출전해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완은 파리 상젤리제 거리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21구간에서 올해 세 번째 구간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그는 "하나를 이루면 두 개를 원하게 되고 이제 두 개를 가졌으니 세 번째 우승을 파리 상젤리제에서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스프린터로 꼽히는 사이클 스타 피터 사간(슬로바키아)이 2위로 들어왔지만, '위험한 움직임'을 했다는 이유로 85위로 강등됐다. 시간은 이날 마지막 접전 중 바우트 판 아르트(벨기에)를 위협하는 듯한 레이스를 해서 제재를 받았다. 구간 2위는 이완의 절친한 친구인 샘 베넷(아일랜드) 차지였다. /연합뉴스



케일럽 이완(호주)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사텔라용-플라주에서 푸아티에까지 167.5km를 달린 '투르 드 프랑스' 11구간 경주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유빈, 이봉배 신에 최고위전 우승

프로 신예대회로 재탄생한 이봉배에서 문유빈 3단이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문유빈은 9일 서울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이봉배 신예 최고위전 결승 3번기 2국에서 문민중 3단에게 178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같은 날 열린 결승 1국에서 흑 반집 승을 거둔 문유빈은 종합전적 2-0으로 문민중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대국 후 시상식에서 김한상 이봉배장학회 단장과 이종우 이봉배장학회 부단장은 문유빈에게 우승 트로피와 상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문민중은 준우승 트로피와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문유빈은 "프로가 되고 첫 우승이라 기쁘고, 특히 1기 대회 우승자가 돼서 정말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많은 프로기사를 배출한 어린이 대회로 명성을 쌓았던 이봉배는 올해 14년 만에 프로 신예 대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테넷
2관	뉴 뮤턴트
3관	에이바, 뉴 뮤턴트, 테스 & 보낸 여름
4관	외 문화
5관	외 문화
6관	기괴괴 성형수
9관	기괴괴 성형수, 테넷
7관	세네카를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오케이 마담
8관	기괴괴 성형수, 고스트 오브 워 반요: 디텐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 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알폰스 도데의 '별'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